

- ④ 김응서는 충신의 도리로써 조선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강홍립은 왜국에 남아 부귀영화를 누리하고자 하는 데서 실제 인물을 변용하여 소설에 등장시켰음을 알 수 있군.
- ⑤ 김응서가 왜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탄로나 실패한 이후, 김응서가 비수를 빼어 강홍립을 죽인 데서 당시 조선 민중은 민족적 자긍심과 통쾌함, 정신적인 위안을 얻었음을 알 수 있군.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인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음직*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그로 설위하나이다
 <제1수>

왕상(王祥)*의 이어(鯉魚) 잡고 맹종(孟宗)*의 죽순(竹筍) 꺾어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老萊子)*의 옷을 입고
일생에 양지(養志) 성효(誠孝)를 증자(曾子)같이 하리다
 <제2수>

만균(萬鈞)*을 늘어 내어 길게 길게 노를 꼬아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에 가는 해를 잡아매어
북당(北堂)에 학발쌍친(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하리라
 <제3수>

군봉(群鳳) 모이신 데 외가마귀 들어오니
백옥(白玉) 쌓인 데 돌 하나 갈다마는
봉황(鳳凰)도 비조(飛鳥)와 유(類)이시니 뵈셔 논들 어떠리
 <제4수>
-박인로, 「조홍시가」-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 중국 삼국 시대 때 육적이란 사람이 원술이 준 귤(유자)을 품속에 품었다가 어머니께 드린 고사를 연상하며 말한 것임.
*왕상: 중국 진나라 때 사람으로, 병을 앓는 계모가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자 한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깨었는데 그 얼음 구멍에서 한 쌍의 잉어가 튀어나오자 그것을 계모에게 갖다주었음.
*맹종: 중국 오나라 때 사람으로 죽순을 즐겨 먹는 어머니를 위해 죽순이 나오지 않은 겨울에 대숲으로 가 죽순을 구해 어머니께 드렸음.
*노래자: 중국 초나라 때 사람으로, 70세에 부모님을 위해 때때옷을 입고 재물을 퍼웠음.
*만균: 균은 무게의 단위로, 만균은 쇳덩어리 30만 근에 해당함.

(나)

봄은 오고 또 오고 풀은 푸르고 또 푸르니
나도 이 봄 오고 이 풀 푸르기같이
어느 날 고향에 돌아가 노모께 뵈오려뇨.
 <제1수>

기러기 아니 나니 편지를 뉘 전하리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를쓴가
매일에 노친 얼굴이 눈에 삼삼하야라.
 <제6수>

내 죄를 아옵거니 유찬(流竄)이 박벌(薄罰)이라.
지처(至處) 성은(聖恩)을 어이 하여 감사올고
노친(老親)도 풀터 헤시고 하 그리 마오쇼셔.
 <제10수>

하늘이 높으시나 낮은 데를 들으시네
일월이 가까우샤 하토(下土)에 비추시니
아모라타 우리 모자지정을 살피실 제 없사오라.
 <제11수>
-이담명, 「사노친곡」-

(다)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 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고, 자기가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善)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맘 내키는대로 즉시 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다.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 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장성하여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삼십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하였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興),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猶).”라고 하였으니, 아,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에듯 하므로 매우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방의 이웃이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룰까 염려한 것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편지를 남에게 보내어 경례(經禮)의 이동(異同)을 논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또 그만둔다. 남을 논박하는 소(疏)를 봉(封)해 올려서 조신(朝臣)의 시비(是非)를 말하고자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어서이므로,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또 그만둔다. 진귀한 옛 기물을 널리 모으려고 하였지만 이것 또한 그만둔다. 관직에 있으면서 공금을 농간하여 그 남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것 또한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그만두며, 매우 부득이한 것 일지라도 남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그만둔다. 진실로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7년이 되는데, 이것을 당(堂)에 편액으로 달려고 했다가, 이윽고 생각해 보고는 그만두었다. 초천(菴川)에 돌아와서야 문미(門楣)에 써서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인 까닭을 적어서 어린아이들에게 보인다.

-정약용, 「여유당기」-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에 운율을 부여한다.
- ② (나)는 화자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나)는 세상의 세태를 비판함으로써, (다)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드러냄으로써 주제를 부각한다.
- ④ (가)와 (나)는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주제를 부각한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만나길 원하는 상대와의 단절감으로 인한 좌절감을 부각한다.

23.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는 풍경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 ② <제2수>에서는 고사 속의 인물을 인용하고 이를 통하여 화자의 다짐이 드러난다.
- ③ <제3수>의 중장에서는 풍경에 대한 감상이 드러난다.
- ④ <제3수>에서는 현실적인 장면을 초장과 중장과의 인과적 관계를 통한 연결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제4수>의 초장에서는 화자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대상을 열거하고, 중장에서는 이를 통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24.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조홍감'과 (나)의 '유찬'은 모두 화자의 공허감을 드러낸다.
- ② (가)의 '이어', '죽순', '웃'은 스스로의 힘을 통한 효도를, (나)의 '편지'는 조력을 통하여 이뤄지는 효도를 가리킨다.
- ③ (가)의 '증자'는 화자가 동경하는 인물, (나)의 '기러기'는 화자의 효도를 성공시키는 대상이다.
- ④ (가)의 '만균'은 화자의 효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나)의 '성은'은 화자가 '노친'에게 받은 은혜를 드러낸다.
- ⑤ (가)의 '외가마귀'는 효를 상징하고, (나)의 '꿀'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속성을 통하여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는 대상이다.

2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하고 싶지 않으나 그만둘 수 없는 일도 있고, 하고 싶으나 그만두어야 하는 일도 있음에 대한 '나'의 인식이 드러난다.
- ② ㉡: 자신이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세상을 사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 ③ ㉢: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세태가 자신의 운명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이를 통하여 지난날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한탄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 '나'가 삶을 사는 데에 있어 기준이 되고, 앞으로 얻을 깨달음의 근거가 되는 대상이다.
- ⑤ ㉤: 부득이하지 않은 일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일임에도 그만두어야만 하는 상황의 조건이 드러난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고사를 인용하여 역사 속에서 효를 행한 인물들을 열거하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함을 통해, (나)는 귀양을 간 화자가 자신의 노모와 헤어지게 된 상황에서 노모에 대한 걱정을 통해 화자의 효(孝)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 ① (가)의 '품어가 반길 이 없을새 그로 설위하나이다'에서 화자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 효를 행할 수 없음이 드러나는군.
- ② (나)의 '유찬'은 화자가 죄를 지어 귀양 왔음을 드러내고 이를 통하여 화자가 '노친'과 헤어지게 된 배경이 드러나는군.
- ③ (가)의 '만균'은 '구만리장천'의 '가는 해'를 잡아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만드는 존재로 '가는 해'를 잡는 데에서 이를 통해 '학발쌍친'의 부모가 장수하길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는군.
- ④ (가)의 '외가마귀'는 화자가 '군황'과 같이 놓은 대상으로 이를 통해 '외가마귀'의 가치가, (나)의 '하늘'과 '일월'은 화자가 자신이 노모와 함께할 수 있게 할 절대적 존재라 믿는 대상이지만 이들은 화자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수 없음이 드러나는군.
- ⑤ (가)의 '왕상', '맹종', '노래자'는 효를 행했던 인물들로 화자가 동경하는 인물들이고, (나)의 '꿈인들 이룰쏜가'는 노모에 대한 걱정으로 화자가 밤마다 느끼는 근심이 드러나는군.

2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에는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집의 이름에 넣는 경우가 많았다. 정약용의 경우, 신중하기(興)와 삼가기(猶)를 중요한 가치로 삼았고, 「여유당기」에서는 이를 통한 깨달음이 드러난다.

- ① '나'가 선(善)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 모르는 것과 행동하는 데 있어 의심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것은 이후 깨달음을 통해 모두 그만둘 수 없는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이 드러나는군.
- ② 겨울에 시내를 건너지 않는 사람이 시내를 건너는 것은 원래 시내를 건너는 것이 그만둘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후 시내를 건널 때에는 부득이한 일로 변모했기 때문임이 드러나는군.
- ③ '경례'를 논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 '조선(朝臣)'의 '시비'를 말하는 것, '옛 기물'을 '모으'는 것을 하지 않은 데에는 이 일들이 모두 '나'의 마음에 크게 두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은 데서 '나'의 신중한 모습이 드러나는군.
- ④ '나'가 신중하기(興)와 삼가기(猶)의 가치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편액에 다는 것은 부득이하지 않은 일이라는, 문미(門楣)에 써서 붙인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는군.
- ⑤ 선(善)을 좋아한 '나'가 비방을 들었던 데에는 신중하지 못했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그의 행동거지가 해롭지 않은 일이라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따라서 선(善)을 행함이 오히려 부득이한 일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할 수 있음이 드러나는군.